

詩碑 건립·문학상금 쾌척 '영랑 덕후' 부산 기업인

(사비)

영랑시문학상 시상금 3년간 9천만원 기탁 협성종합건설 정철원 회장

강진 생가만 10회 넘게 방문... 시공한 아파트단지에서 시 조형물 설치도 이면지 쓰고 골프 안치는 근검절약인... 4명 자녀에게 유산 상속 않기로

김영랑 시인을 흠모하며 자랐던 부산의 한 중견 기업 회장이 영랑 선양사업을 위해 거액을 기탁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부산 소재 ㈜협성종합건설 정철원(74) 회장은 제17회 영랑시문학상 시상금에 써달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3000만 원씩 총 9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올해분 3000만원 기탁식은 오는 16일 강진군청에서 열린다.

정 회장은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있는 강진을 열 번 이상 방문할 만큼 '영랑사랑'이 깊다. 그는 마산상고(현 용마고)에 다닐 때 항토적이

면서 리드미컬한 김영랑의 시에 매료됐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영랑을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정 회장은 자신이 시공한 부산 지역 아파트단지 두 곳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을 조형물로 설치해 주민들에게 영랑의 감수성을 전파하기도 했다.

경남 거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건축자재상에 취업했다가 1972년 건축자재상을 차려 독립했다.

1983년 협성건설을 세워 연립주택 32가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협성종합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 평가액 5965 억원으로 도급순위 전국 56위(부산 2위)의 최우량 기업이다.

그런데도 그는 '휴식 한 장을 두 번 쓰는 회장님'으로 소문이 날 만큼 근검절약한 삶을 살고 있다.

정 회장은 나후지역인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에서 산다.

부산의 부자들이 주로 해운대에 사는 것과 판판이다.

그의 책상 메모지도 달력 이면지를 사용하고, 공사 현장을 돌겠다고 골프도 치지 않는다.

정 회장의 6개 계열사에는 자식은 물론 친인척이 한 명도 없으며, 1남 3녀의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10년 거액의 사재를 출연, 협성문화재단을 설립해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신문의 위기와 나아갈 길

지역신문발전위, 광주일보 등 지역 일간지 14개사 권역별 현안토론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지역신문 권역별 현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언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

광주일보를 비롯해 경기일보, 인천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뉴제주일보 등 경기·충청·호남·제주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일간지 14

개사 지역신문 발전기금 담당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과 전문위원 3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류한호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광주대 윤석년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신문의 위기와 나아갈 길'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의견도 공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년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일간지의 위기와 나아갈 길'에 관해 주제발표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흥기월·전영원 동구의원, 충장로 상점 활성화 감사패

광주시 동구의원 흥기월(민·원쪽)·전영원(왼쪽 세번째) 의원이 최근 '충장로 오래된 가게' 발간과 충장로 상점이 활성화에 헌신한 공로로 (사)충장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흥 의원은 "상인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충장로 상점가가 지역상권의 중심지로의 재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영세 상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지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주민을 섬기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충장로의 오래된 가게들은 목은 된장맛나는 보물이며, 흥내 낼 수도 복원할 수도 없는 문화관광자원"이라며 "오래된 가게가 더욱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세심하게 듣는 생활정치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



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영래정형외과병원, 헌혈 캠페인 동참



문영래정형외과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시대 장기화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함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들이 헌혈 행사에 동참했다. 문영래 병원장은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병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행사에 동참한 것에 감사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헌혈행사를 갖겠다"고 말했다. <문영래정형외과병원 제공>

양영희 전남대 교수, 대통령 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촉

전남대학교 양영희 국어교육과 교수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조직인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신(新)남방정책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천명한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국가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무역,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긴급 사태 예방 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등을 비롯한 16여 가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외교부·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차관이 위원장을 보좌하는 구조적 틀을 갖추고 있다.

양영희 위원은 신남방 지역과의 문화 교류 거점 확충 및 문화 ODA사업, 아세안 문화·언어 콘텐츠 확산, 신남방지역 학생의 장학생 지원사업 및 대학생 초정연수 등을 통한 학생교류와 공무원 연수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임기는 2021년 10월 4일까지 1년이다.

/채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친환경 농업' 홍순영·서순자 부부, 새농민 분상·국무총리상

구례의 농민부부가 농협중앙회 새농민상 분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7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제55회 새농민상' 시상식에서 구례군 광의면 홍순영·서순자 부부(순영농장)가 분상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함께 농장을 경영하면서 친환경 농업으로 단감, 쌀, 밀을 생산하고 있다.

환원순환농법이라는 농법을 개발해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에 이달의 새농

민상을 받기도 했다.

'새농민상 분상'은 농협중앙회에 서매달 수여하고 있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중에서 매년 1회(20부부 내외) 최고의 농업인을 선별해 시상하고 있으며 정부포상도 이뤄지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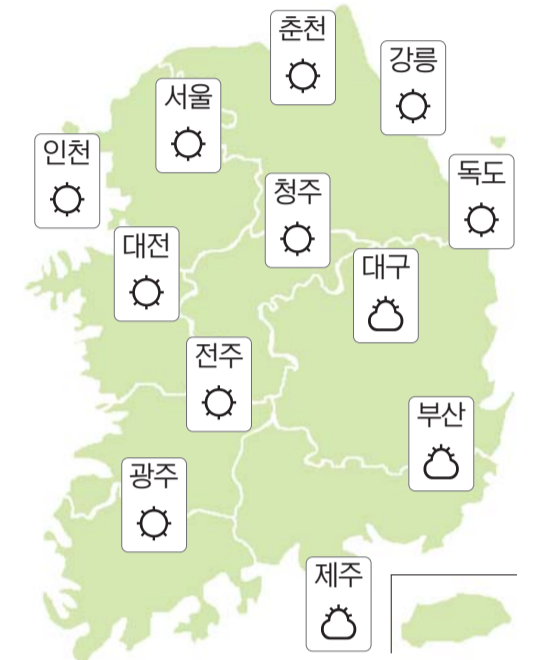
해돋이	06:33	달뜨기	22:03
해지기	18:07	달지기	12:06

한로(寒露)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3/24	보성	맑음	12/23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4/24
여수	맑음	16/22	영광	맑음	11/24
나주	맑음	11/25	진도	맑음	13/24
완도	맑음	15/24	전주	맑음	12/24
구례	맑음	11/25	군산	맑음	12/24
강진	맑음	13/24	남원	맑음	12/23
해남	맑음	12/24	흑산도	맑음	17/21
장성	맑음	12/2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1.0~3.0
	면바다(북)	1.5~3.0	2.0~3.0
	면바다(남)	2.0~4.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2.0~4.0	2.0~4.0
	면바다(서)	2.0~4.0	2.0~5.0
	면바다(동)	2.0~5.0	4.0~6.0

◇ 물때

		간조	만조
		시간	시간
목포	간조	10:34	05:24
	만조	23:23	18:09
여수	간조	05:48	12:31
	만조	18:27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관심	높음	좋음

◇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	☀	☀
11/24	16/25	15/25
12(월)	13(화)	14(수)
☀	☀	☀
15/23	13/22	13/2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음 8월 22일 甲申)

☎ 010-9790-8237

子 36년생 거울과 같이 한 번 금이 가면 회복할 수 없으니라. 48년생 지리멸렬함을 청산하고 과거적인 진보를 보이겠다. 60년생 역풍을 안고 있지만 머지않아 반전 될 것이니 대범하게 임하자. 72년생 원인은 돈 때문에 발생한 일임을 제대로 인식하자. 84년생 자주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96년생 실속은 없고 명분이나 구실만이 남무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5, 73

丑 37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니라. 49년생 결과 속이 팍 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61년생 힘들다고 하여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자. 73년생 관리를 잘 하라. 85년생 체계적인 정돈이 필요하도다. 97년생 일시적인 현상과 빛깔에 현혹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1, 75

寅 38년생 자신이 행한 결과만큼에 비해할 것이다. 50년생 현재의 일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볼 일이다. 62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기교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74년생 격정했던것보다 대단하지는 않다. 86년생 신년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98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76, 72

卯 39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확실하게 틀어 고치는 것이 낫다. 51년생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 63년생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이니라. 75년생 향후의 상황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87년생 추진해 보았자 주목할 정도의 실익은 없을 것이다. 99년생 길사후 연결되는 행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5, 57

辰 40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의식할 필요 없다. 52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끌 수 있느냐이다. 64년생 무모한 피해를 부를 수도 있으니라. 76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되리라. 88년생 구체화 되면서 가능성을 높이게 되니라. 00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78

巳 41년생 성공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53년생 거슬러도라도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다. 65년생 과신하다 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77년생 사심을 버려야 진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89년생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면 실수를 면한다. 01년생 보완할 수 있는 장치나 수단이 절실히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24, 89

午 42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54년생 평상시에 몸이 찻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66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기복이 보인다. 78년생 바야흐로 같은이 한창 피어날 때이니라. 90년생 가장 근본적인 면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02년생 반복 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04, 63

未 31년생 가정자리가 매우 부실한 모습이니라. 43년생 모든 일에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라. 55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67년생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가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79년생 도와주는 이가 있어서 겨우 체면을 유지 하리라. 91년생 단일한 형태가 효율성을 제고 시키리라. 행운의 숫자 : 30, 97

申 32년생 승산이 있는 게임이니 주저 말고 진행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44년생 방심한다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음을 알라. 56년생 짐작으로 판단한다면 큰 일 나겠다. 68년생 예견된다면 확실히 회피하는 것이 옳다. 80년생 관련 된다면 부담스러운 일들이 속출할 것이니 즉시 철회하는 것이 낫다. 92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13, 82

酉 33년생 다중적인 구조이다. 45년생 생각만으로는 무의미하니 직접 실행하라. 57년생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되니 급할수록 돌아가라. 69년생 전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 81년생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실행해야 한다. 93년생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0, 84

戌 34년생 추론했던 결과에 대한 예상이 빛나기 바릴 수도 있다. 46년생 강한 확신이 있다면 과단성 있게 바로 추진하자. 58년생 입주의 여지가 없겠다. 70년생 완급의 조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으니 한 탐 쉬어가는것도 좋겠다. 82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니 확실해 대비하라. 94년생 내면의 실속은 없다. 행운의 숫자 : 16, 96

亥 35년생 이번 판단은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47년생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59년생 비바람이 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71년생 대응 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83년생 원점에서 재검토해 봐야겠다. 95년생 속명적으로 시비를 가려야 할 처지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21, 79